

32개 국 120여 흥법원 5만 '승산제자'의 고향

한국불교 세계화의 산실 화계사

요즘 출가수행자로서 해외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다. 유학지도 일본을 넘어 유럽과 미국으로 넓어졌다. 낯설고 물 설은 것은 물론이고 말도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님들이 먼 이국땅에서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 학업을 마치고 그곳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며 한국불교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한다. 한국 불교 미래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학생들의 이런 노력이 있기 전까지 일본을 제외한 외국인 가운데 한국불교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국력이 약했던 탓에 그 나라 문화 역시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는 편견도 있었다.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 문화를 보는 시각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불교는 해외에서 상종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행의 울골음이 살아있고, 오랜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불교문화의 우수함이 해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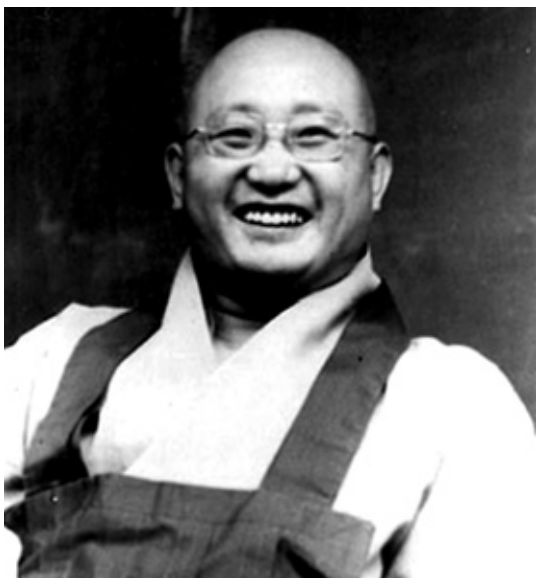
이런 호평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동양문화라고 낮게 보는 편견 속에서 한국불교를 알려온 결과이다. 세계적으로 신장한 국력이 보태지면서 이제 세계인이 우리의 불교를 배우러 오고 있다.

훌륭한 결과는 쓰라린 아픔을 담고 있는 법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자신의 속명처럼 처음 걸어가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불교를 배우러 오고, 한국의 불교문화를 보고 찬탄할 것이다. 그런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토대를 만든 선구자에 대한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의 많은 사찰 가운데 일찍부터 세계화에 눈뜬 곳이 있다. 강북구 수유리 화계사이다. 이곳 역시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다. 중종 17년(1522) 신원 선사(神源)가 창건할 때 서평군(西平君) 이공(李公)의 도움이 컸다. 중창 때에는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의 도움이 있었다. 근대에 들어서 1880년 11월 완화군(完和君) 이헌공(李獻公)의 명복을 빌기 위해 상공 천씨(千氏) 등이 화계사에 불량(佛欄)을 시주하는가 하면, 대왕대비 조씨(趙氏)는 익종(翼宗)과 현종(憲宗)의 명복을 빌기 위해 화계사 명부전에 불량도를 헌납했다. 대비는 이후 1883년 12월 관음전에 불량을 시주하는 관심이 많았다. 이런 왕실과의 인연은 1866년 불전과 승방 건물들을 중수할 때 흥선대원군이 크게 시주해 원찰로 삼을 정도였다.

여는 사찰처럼 제법 역사성을 간직한 화계사이지만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화계사에는 국제선원이 있어 눈부른 납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곳은 1991년 개원 이래 세계 각국에서 구도자들이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몰려오고 있다. 한국의 선을 체험하려는 수행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았지만 수행과정은 녹록하지 않다. 엄격한 선방규율이 의거하여 하얀커 및 동안거를 지내야 한다. 한국불교를 알고 싶어 하

조선 중종 17년 신원 선사 창건
흥선대원군 시주해 원찰 삼던 사찰
김옥균·무불 스님 등 개화파와 인연
승산 스님 '世界一花' 퍼워낸 큰 스승



세계적인 선사 승산행원 스님은 화계사를 한국불교 세계화의 산실로 일궈낸 주역이다.

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매주 일요일 영어 참선법회 법문이나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수행한 외국인 승려 가운데 한국사찰의 조실과 주지를 맡아 한국인에게 참선을 지도하는 스님들도 있다. 진정한 한국불교의 세계화라 말할 수 있다.

화계사는 일찍부터 세계화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많았다. 근대 이곳에 머물며 개화파에 투철했던 수행자가 무불(無不)이다. 본명이 탁정식(卓挺植)으로 아버지가 참판을 지낸 양반가의 자제였으나 벼슬 길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국운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불문(佛門)에 들어왔다. 백담사에서 출가해 강사를 지냈지만 일찍부터 개화된 문물을 알고자 화계사로 왔다. 이곳에서 운명적으로 개화파 김옥균을 만나 활동하게 되었다.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문물을 배우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았던 그는 넓은 세계를 알기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가 첫 번째 일본에 간 것은 같은 승려이면서 개화파였던 이동인이 일본의 변모된 사회와 국제정세를 파악할 때 그를 돕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일본행도 이동인이 한미수호조약(韓美修好條約) 체결을 알선하기 위해 청국공사 하여장(何如璋)을 만나러 갈 때 동행했다. 1880년 11월 5일 원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임무를 마쳤지만



서울 수유리 화계사 전경. 사찰 규모는 작지만 화계사 스님들의 원력만큼은 세계를 누빌 정도로 컸다. 승산 스님의 원력에 힘입어 1991년 국제선원 등이 들어서고 눈부른 납자들이 한국 불교를 배우기 위해 찾는 곳이 됐다.

귀국하지 않고 신호(神戶)에서 영국 영사의 한국어 교사가 됐다. 동경으로 옮겨서는 영국 공사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 주고 그들의 교류를 통해 서양문물과 정세에 대해 알리고 노력했다.

세 번째는 신사유람단 13명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을 마치고 동경에 머물며 동경 외국어학교 교사로 취직했다. 1882년 4월 김옥균이 일본에 오자 일본의 실정을 들려주었다. 임오군란으로 김옥균이 귀국하면서 울릉도 목재운반을 부탁하자 배를 구입해 신호항(神戶港)에 왔으나 급병으로 1884년 유명을 달리했다.

화계사가 진정 한국불교 세계화의 산실이 된 것은 승산행원 스님에 이르러서이다. 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출생해 1947년 10월 마곡사에서 출가했다. 1949년 1월 25일 고봉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수 받고 승산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1958 화계사 주지가 된 이래 불교정화운동 참여, 대한불교신문사(現 불교신문) 초대사장, 총무원 총무부장, 동국학원 이사 등 교계 안팎의 중요한 소임을 맡았다.

승산 스님이 1966년 일본에 흥법원을 개원한 이후 한국불교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 시작은 작은 데서 비롯됐다. 종단 소임을 맡아 중국 초동 동국대 기숙사를 하룻고 세집을 지으려 할 때 지하실에서 4000여 구의 일본군 유골이 발견됐다. 그곳이 일본 서본원사의 별원이었던 까닭에 전몰장병의 유

해가 안치됐던 것이다. 화계사로 옮겨다 놓은 유골이 일본으로 반환되고, 이 일을 계기로 일본에 건너간 승산은 재일교포들이 일본불교를 믿는 것에 몹시 안타까워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일본포교를 결심했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힘들었지만 일본인 신도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동경에 흥법원을 개원할 수 있었다. 이곳은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의 거점이 됐고, 일본에 유학한 한국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이곳이 번창하자 승산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 인연은 그로 하여금 다른 나라로 가게 하는 인연을 만들었다. 그것이 1968년부터 절을 짓기 시작해 2년 뒤에 개원한 홍콩 흥법원이다.

승산의 한국불교 세계화는 미국에서 절정을 이뤘다. 홍콩 흥법원이 마무리되자 미국포교를 제안 받았다. 1972년 봄 초청장과 비행기 표를 받은 승산은 잠시 머물 생각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곳의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미국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미국에 도착해 조그만 아파트를 얻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참선을 지도했다. 영어를 하지 못한 선사는 통역을 통해 선을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참선을 배우러 찾아오는 신자가 늘어 아파트를 옮겼다. 공간이 넓어 지고 미국인들에게 불교를 잘 전달하는 통역자가 생기면서 아파트가 메어지도록 사람들이 몰려왔다.

좋은 일이 많아지면 싫거나 어려운 일도 많아지는 법이다. 미국은 한국의 신앙풍토와 달라 시주하는 신도가 없었다. 당연히 재정은 어렵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산 자신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세탁소에 나가 돈을 벌었다. 미국인 신도들도 낮에 일하고 저녁에 참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참선하고 일터로 나갔다. 그러는 가운데 참선을 지도하고, 금요일 밤에 정기법회를 하면서 1972년 9월 뉴욕에 흥법원을 세웠다.

미국에 한국불교를 알린 승산의 발길이 향한 곳은 유럽이었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수많은 곳에 도량을 건설하고 한국불교를 알렸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브라질 등 남미까지 전 세계 32개국 120여 개의 흥법원을 개설하고 5만여 벽안의 납자와 제자들을 두었다. 가히 세계를 포교한 분이라 할 수 있다.

1991년부터 화계사에 국제선원을 두고 한국으로 세계의 수행자를 불러들였다. 승산이 이처럼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만공 스님으로부터 전해진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서원 때문이다. 그 뜻을 이루었으니 승산은 진정 꽃을 든 남자이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 번 질할 때 마다 한 알씩 췌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뱉었던 길, 발자국이 중생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여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인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때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염주 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후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 염주 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리미터를 살짝 지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산인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